



기술로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기업

# 서원기술

시원하게 뻗은 고속도로, 쏟아져서 날아가는 제트기. 모두가 앞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한다. 이렇듯 모든 것이 곧게 뻗으면 좋겠지만 파이프는 그렇지 않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고정관념을 깨고 스테인리스 스틸 관 개발에 앞장선 조경호 사장에게 성공이란 또 다른 도전을 위한 도움달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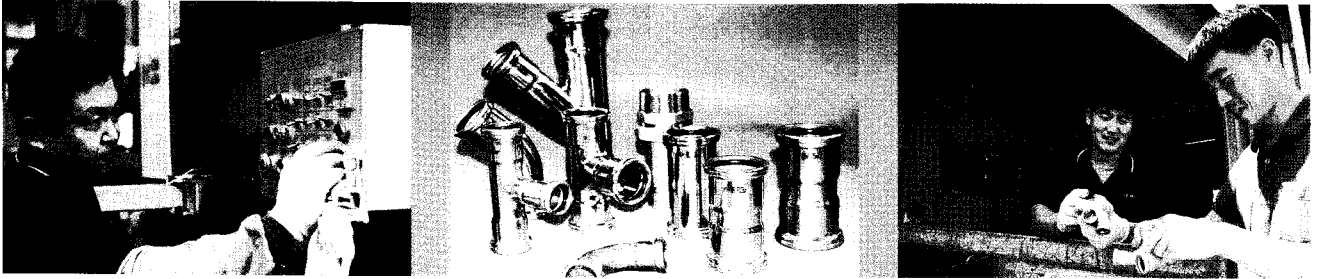
대도시를 조금 벗어난 용인의 끝자락에 위치한 서원기술은 오전부터 모두 바쁘게 움직인다. 최근 특허기간 만료로 경쟁사가 생기기 전까지 국내 유일무이한 기술력을 갖춘 제품을 독보적으로 생산해 온 서원기술은 납품 일자를 맞추기 위해 잠시도 쉴 틈이 없다.

1987년 설립 후 내식성이 향상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용접 없이 압착공구를 이용해 간편하게 시공할 수 있는 관 이음새를 생산하고 있는 서원기술에 조경호 최고경영자가 부임해 운영을 맡은 것은 1996년. 설립 당시 주철이나 동이 주 재료였던 수도관 파이프 시장에 스테인리스 스틸관을 들고 나오자 모두가 고개를 저었다. 게다가 이음새는 용접을 해야 튼튼하다는 고정관념까지 겹쳐 지난 10여 년 동안 탁월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진입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다.

### 끈기로 시대를 기다려온 기술력

무용접 배관 이음 방식이 국내에 소개된 것은 1980년대 중반의 일이다. 일본에서 단일링 프레스 방식의 조인트가 국내 건설 현장에 전격적으로 도입되면서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이후 수많은 유사 제품이 출시되었지만 정확한 규격이 정해지지 않았고 구조적인 면에서도 문제점이 많았다. 1987년 서원기술이 개발한 'SR-JOINT'는 기존의 단일링 프레스 방식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 프레스식 이중링 방식에 대해 2007년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을 취득하고, 국내 주요 건설 현장에 납품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 등으로 점차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보완한 제품으로 스테인리스링과 고무링이 삽입된 이중링 구조의 프레스 압착식 스테인리스 배관 이음쇠였다. 또한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특허를 취득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은 제품이기도 했다. 그러나 출시 당시에는 배관 자재로 동관이 일반적으로 선호되던 때라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오랫동안 과거의 방식에 익숙해진 현장 담당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을 찾아다니며 직접 설득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던 중 한 대기업 건설사에서 관심을 보였고, 이를 계기로 시장을 확대해 갈 수 있었습니다.”

조경호 최고경영자의 발로 뛰는 경영에 힘입어 서원기술의 기술력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회사는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동관 소재의 가격 상승과 환경 보호 및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염원으로 스테인리스 소재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도 서원기술에게는 더없는 호재로 작용했다.

#### 인정받은 기술로 무한성장 시작

스테인리스 소재가 각광받기 시작한 2004년 이후에는 스테인리스 용접의 어려움으로 서원기술의 무용접 방식이 더욱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미래를 준비하며 기술력을 키워온 서원기술의 제품들이 날개를 펼칠 시기가 온 것이다. 이후 다른 두 개의 링을 매개로 전용공구를 이용하여 두 홈을 원형으로 압축하는 방법인 DRP(Dual

Ring Press) 방식으로 생산하는 서원기술의 SR-JOINT는 시공성, 편의성, 안정성, 위생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서원기술은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 프레스식 이중링 방식에 대해 2007년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인증 취득으로 인해 서원기술 제품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는 더욱 향상되었고, 국내 주요 건설 현장에 납품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 등으로 점차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기존에 사용 중인 상하수도 라인의 범위를 벗어나 가스, 오일 라인 및 플랜트 배관 라인에 저희 DRP-JOINT 제품을 적용하기 위해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고부가가치 기자재 기반 기술 개발 사업에도 참여해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신제품 양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미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신기술 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 서원기술은 2007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했다. “서원기술의 모든 직원은 ‘회사는 나의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제안’이라는 소통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회사 전반의 원가 절감과 복리 증진, 업무 환경 개선 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기술 증진만큼이나 직원의 행복에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서원기술. 서원기술의 미래를 향한 성장 스토리아말로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